

- 1. 부교: 김정혜 집사 부친 되시는 故 이상용 성도님께서 11월 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2. 선교회 월례회: 오늘 친교 후
- 3. 제직 세미나 #2: 11/18(금)
- 4.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 11/20(주)
- 5. 4/4분기 정기 제직회: 12/4(주)

12월 교회 사역 일정

- 12/4 선교회 월례회
- 12/11(주): 연말 정기 공동의회
- 12/18(주): 기관장모임
- 12/25(주): 성탄절 연합 예배
- 12/31(토): 송구영신예배

주일예배 [말씀 위에 삶을 건설하라] 시리즈 설교 계획

- ① 11/6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 (디모데후서 3:13-17)
- ② 11/13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느헤미야 8:1-6)
- ★ 11/20 추수감사주일 (시편 107편 1-9절)
- ③ 11/27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디모데후서 2:14-26)
- ④ 12/4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시편 1:1-6)
- ⑤ 12/11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야고보서 1:19-27)
- ⑥ 12/18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신명기 6:1-9)

지난주 (11월 6일) 헌금 통계 (\$2,295.00)

예배시간 안내

- 주일 1부 예배: 주일 오전 9시 30분 (본당)
- 주일 2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 (본당)
- 새벽 예배: 화-토 오전 6시 (본당)
-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7시 50분 (본당)
- EM 예배: 주일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실)
- 어린이 예배: 주일 오전 11시 (어린이부 예배실)

코너스톤 양육과정

새가족반 (4주 or 7주)	하나님과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실존적 필요를 위한 과정	수시개강
장학반 (5주 or 10주)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길 원하는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	수시개강
기초반 (12주)	하나님나라 복음에 기초한 균형 있는 삶의 토대를 배우고 익히는 일대일양육교육	수시개강
제자반 (20주)	하나님나라를 살아내고 다른 한 사람에게 하나님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일을 위한 일대일제자훈련	상,하반기 1차씩 (1월, 8월 개강)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영록 | 교육강도사 Sagar Mekwan | 교육전도사 김지선  
시무장로 이현진, 김소영 | 유무장로 전진홍



33428 N. Sears Blvd. Grayslake, IL 60030  
T. 224-541-4359 | www.cpcgl.org

하나님의 꿈이 있는 교회

코너스톤장로교회

미국장로교 PCA

말씀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삼아  
하나님나라 세워가는 성령의 공동체

코너스톤장로교회  
Cornerstone Presbyterian Church

1부 예배	2부 예배
예배부름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부름 요한복음 4장 24절
● 영 광 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경배찬양
● 사죄은총	● 영 광 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 감사찬송 새찬송가 14장	● 사도신경
● 교 독 문 41번 [시편 97편]	대표기도 박성호 집사
● 사도신경	교회소식
봉헌기도	성경봉독 느헤미야 8장 1-6절
교회소식	찬 양 대
성경봉독 느헤미야 8장 1-6절	봉헌기도
<b>말씀강해</b>	<b>말씀강해</b>
<b>“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b>	<b>“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b>
● 송영찬송 새찬송가 205장	● 결단찬양 [주만 바라볼찌라]
● 축 도	● 축 도
● 표에서는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 1) 오늘 본문은 유대인에게 있어 새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새롭게 시작 된 새해는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오랜 세월 동안 바라고 원하던 성전 재건이 완공되었으며, 또한 무너져 내린 성벽도 다 복원되었기 때문입니다.
- 2)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땅에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 3)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회의 특이한 점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계획한 모임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성회는 지도자들이 구상하여 이뤄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하여 이루어진 집회입니다. 이처럼 포로 귀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 4) 드디어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부탁 받은 대로 새해 첫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나타냅니다. 오늘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해할 만한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른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 5) 새해 첫날 말씀을 5-6시간 연속적으로 듣고 배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부흥의 현장에는 언제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강한 열의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인 곳에서 부흥은 시작합니다.
- 6)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주는 기회를 누릴 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흘 굶은 자에게 주어진 빵 한 조각처럼,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심혈을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 7) 물이 풍족한 나라에 사는 사람은 물 귀한 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물 부족 국가에 사는 사람은 물줄기가 곧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성경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어디서나 쉽게 성경을 구할 수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은 성경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소유하는 것조차 금지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성경을 금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금괴를 주고서라도 사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 8)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적혀 있는 책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그 앞에 앉아 있던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선다는 것은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경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 9)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와 율법을 마치 보물을 발견하듯이, 마치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 이뤄진 것처럼 기뻐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때 마치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내 마음에 소원이 이뤄진 것처럼 즐거워했습니다.
- 10)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기쁨과 만족을 주는 최고의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 역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 11) 성경을 읽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 12) 에스라와 온 백성의 율법 낭독은 단순히 의식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적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금요찬양예배 (7:50pm)**

제직 세미나 #2